



## 7분, 25kg 그리고 안녕(安寧)을 향한 소명 의식 철원소방서 박자혁 소방장

10여 년 전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등장한 소방관의 기도가 많은 시청자를 울린 적이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소방관이란 직업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화상 환자 지원을 위한 소방관 달력이 나오며 입소문을 타기도 했고, 얼마 전 방영된 '사이렌:불의 섬'이란 예능에서는 멋진 리더십과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소방관이란 직업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소방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차례다.

글 양생 사진 이용기

### ◆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팔방미인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팔방미인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히터,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 같은 겨울용품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매트는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꺼냈을 경우 반드시 훼손 여부와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거나 구기면 단선될 수 있으니 선이 접히지 않도록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소방관. 그들에게 겨울철은 특히 비상인 계절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바쁜 시기에 어렵게 만난 박자혁

소방장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신신당부한다.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전기 기구를 연결하지 말 것, 온열 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소방관의 업무가 단지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고, 벌이 활동하는 계절에는 벌집 제거나 신고된 동물의 포획, 잠금장치 개방, 장애물 제거와 안전조치(간판, 나무 제거), 위치확인, 생활기침, 피해복구지원, 행사장 지원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수록 소방관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직업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재다능하고 만능이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박자혁 소방장은 처음부터 소방관이 목표였을까? 그가 처음부터 소방공무원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덕분에 여러 기술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전역 후 인천국제공항 소방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화재 출동, 구조출동, 대인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그는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게 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소방관의 업무는 진압대원, 구조대원, 운전대원, 구급대원, 행정업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고충이 있거나 힘들 경우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업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강소방관, 속도방수, 드론 대회, 구급전술, 구조전술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의 대회를 준비해서 결과가 좋으면 특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드론, 로프, 스킨스쿠버, 핸들러, 실물화재, 소방차, 구급, 화생방 등 여러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직업적으로 굉장한 매력입니다.”

◆ **우리의 안녕을 꿈꾼다**

박자혁 소방장은 이 일을 하며 특히 누군가의 가족을 구함으로써 한 생명을, 한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이 보람 있다고 한다.

“2020년 철원지역 수해 현장에 출동할 당시 센터 펌프차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출동이 걸려 팀장님과 저, 후임자 이렇게 3명이 출동했습니다. 보가 터져서 모든 곳이 물에 잠겨 차량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히 소방서에 요청한 고무보트를 직접 운전하여 13명의 구조대사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여러 현장이 생생하지만 이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경험도, 가슴에 깊게 남는 순간도 많다.

“수난 사고는 신속히 출동해 구조대사자를 빨리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물놀이 중 1명이 깊은 물에 익수해 친구들끼리 찾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현장이었습니다. 수중 수색 시작 3분여 만에 구조대사자를 찾아 CPR을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이 전문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구조대사자를 살리지 못한 것만큼 힘든 순간은 같이 생활하던 동료의 순직했을 때다. 특수부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선배가 소방 임용 후 순직했을 때 박자혁 소방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에서 처참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는다. 수많은 소방관이 필연적으로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주저 없이 가장 앞장서서 달려 나간다.

“지방 소방학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전문 교육을 활성화해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일선에서 팀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훈련을 진행하지요. 또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로프구조, 수난구조 등 동호회를 만들어 비번에 훈련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개인 사비와 휴무를 사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도 상당수고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7분. 유일하게 내 목숨과 안전을 지켜줄 방화복의 무게는 20~25kg. 이것을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착용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누군가를 구조한다. 그는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소방관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방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 전액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그렇게 그에게 안전이란 행복의 시작이다. 안전이 우리 생활의 기저에서 기본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안녕(安寧)이 지켜진다.

